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8월 뉴스레터 vol. 45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조합비 300만원의 의미

채우고 비우고

주체적인 삶, 당당한 이별

알쓸신장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장지(葬地), 매장 편

안부를 묻다

내 인생 마지막에 입고 떠날 옷은

숫자로 보는 채비

납입액 300만원 넘어도 계속 납부하겠다는 83%

조합소식

'안녕 사이시옷' 유튜브 채널 인터뷰

채비학교

제3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상조문화가 정착하려면 자생을 위한 위한 조합원 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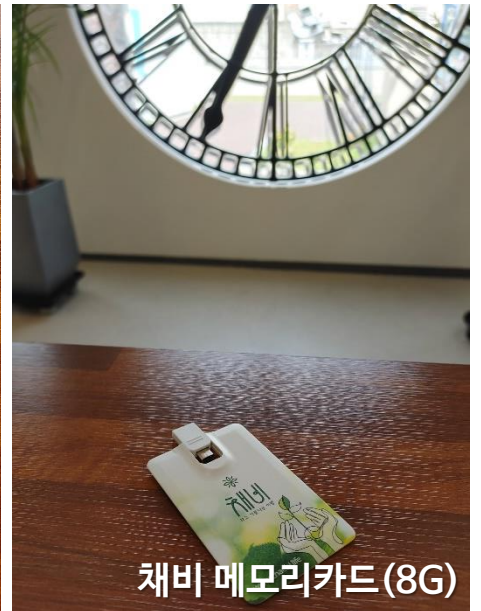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시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 (8G)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조합비 300만원의 의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1좌(1만원 이상) 이상을 납부하고, 장사(葬事)에 대비해 매월 3만원씩 조합비를 불입하면 된다. 상포계(喪布契)이기 때문이다.

왜 3만원일까.

2010년 조합을 결성할 때 주동자(?)들이 본받은 것이 크게 둘이다. 하나는 한살림생협이나 아이쿱생협 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거기에서 조합비의 24%를 운영비로 쓴다는 정책이나 직거래 공동구매 같은 운영원칙을 따왔다.

또 하나는 기존 상조회사들이다. 그들의 3만원 회비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정했다. 형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어느 상조회사에게 배운 것이다. 물론 현재 상조회사들은 3만원만 받지도, 맞춤형을 하지도 않는다.

물론 불입금의 50%를 안전하게 적립하고 음식물과 일회용 쓰레기를 최소화한다든지,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원칙은 스스로 세워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세운 뼈대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나이가 10년을 넘다 보니 적립금 300만원 넘는 조합원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3만원씩 100개월(8년 4개월)을 꼬박 납부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5%에 달한다. 이런 추세는 조합원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게 왜 문제인가.

우리 조합에서 장례를 치르면 대략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장례비는 ① 장례식장 사용료와 식음료비, ② 화(매)장과 봉안비, ③ 제단·수의·관 등 용품과 염습, 운구, 접객 등 인력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 조합과 상조회사가 하는 일이 ③이다.

전체 장례비용은 수도권의 경우 1천50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위 ① ② ③에서 각 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식비용만 그렇다.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과 리베이트는 추산이 불가하다. 이른바 ‘공정거래’가 통하지 않는 곳이 이 바닥이다.

아무튼 우리 조합은 400~500만원 정도 드는 ③의 영역을 300만원 안팎으로 제공한다. 장례 1회분에 해당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조합은 일단 광고비와 영업비가 들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설사 있다 해도 조합원의 복리증진이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쓸 것이다. 또한 오너나 소수 주주의 주머니가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일이 없다. 물론 직원들의 기여와 운영진의 봉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조합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300만원 이상 적립 조합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다. 300만원 이상 불입 조합원 중 1회만 장례를 치를 경우 중지할 수 있다고. 물론 1회 이상일 경우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나의 경우 양가 부모를 모두 여의었지만 나를 위해 계속 불입하고 있다.

문자가 나가자 전화가 쇄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나?”, “300만원 이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나?”...

예를 들어 적립금 350만원일 경우 50만원을 돌려드릴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 상이 발생할 지 모르고, 그 사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기에 그냥 두기를 권한다. 조합비를 중지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유지된다. 문자를 받은 조합원 중 대략 50%는 납입중지를, 50%는 납입지속을 선택하였다. 어느 쪽이든 우리 조합에 큰 도움이 된다.

300만원 이상 조합원에게 공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했고, 대의원이나 일부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결정하였다. 조합원과 약속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조합은 위기를 맞거나 판단이 복잡한 사안이 생길 경우 늘 조합원의 뜻에 따랐다.

우리 조합은 창립 이래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왔다.

- ① 협동조합 방식으로 상조시장을 정화하고
- ② 작고 아름다운 이별 ‘채비장례’로 장례문화를 혁신하며
- ③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길을 조합원과 함께 걷고 있다.

앞으로 매달 300만원이 넘는 조합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구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만들었고, 조합원이 이끌어 왔기에. 굳은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주체적인 삶, 당당한 이별



한 권의 책이 내게로 왔다.

〈별처럼, 흙처럼 팔십자서(八十自叙)〉. 표지가 흰 쌀밥처럼 담박(淡泊)하다.

지은이는 최영선, 팔십을 훌쩍 넘은 할머니이다. 지은이의 막내딸이 편집했다. 화려한 표지의 책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 책은 오히려 눈길을 끈다.

팔십자서, 네 글자에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온 이의 올곧은 자존심이 묻어난다.

“흐르듯, 돌아가듯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의 날도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온 나의 흔적이 남겨진다면 그것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나만의 역사. 살아오는 동안 책은 나의 영원한 정인(情人)이었고, 가장 힘센 길동무였다.”

누구나 소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쉽게 말한다. 책을 묶어도 몇 권은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시시콜콜한 범사(凡事)만으로 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신이 겪은 일에 생각의 숨결과 의미를 불어넣어 보편성과 공감을 얻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지닌다. 책은 경험과 사색을 담은 그릇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지은이는 한국전쟁, 4·19혁명, 5·16 쿠데타, 5·18 광주민주항쟁, 6·10 시민항쟁 등 굵이치는 현대사의 파도를 넘으며 ‘나만의 역사’를 살아왔다.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을 그녀의 삶은 기록하지 않았다면 잊혔을 것이다. 한 여성의 평범한 삶은 그렇게 작지만 또 하나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증언으로 남았다.

편집자는 밝힌다.

“요즘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나이에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그들의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있는 별 같고, 흙 같은 시간을 걸러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노년의 삶이 힘없이 초라한 늙은이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어머니로, 직업인으로, 또 노년의 한 여성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왔다. 그녀가 담담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노년의 삶을 앞둔, 그래서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자유인’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그것이 좋다. (여생은) 사놓고 읽지 못한 책들을 읽을 것이다. 눈이 아직 좋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서전까지 미루고 미루다 출간했으니 정말 할 일을 다한 것 같다. 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욕심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놀기만 해야 할 것 같다. 아주 잘 놀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막춤을 추는 춤꾼이 되고 싶었으나 춤 대신 활자와 평생을 살아온 최영선 님.

그녀는 평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왔듯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고 싶다.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살아낸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과 작별하기를 원한다.

“별 같았고, 흙 같았던 생애였다. 여섯 살 때 지독히 앓았던 열병을 기억하면 참 오래도 살았다. 모두들 고맙다. 안녕! 참, 내가 두고 가는 세상도 안녕!”

* 이 책은 비매품이다. 원하는 분은 pplatform@hanmail.net에 메모를 남기시길.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3.장지(葬地), 매장 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塚)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장지는 어떤 곳이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나누는데, 이번 편에서는 먼저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공설묘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묘지에 매장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보자면 사설묘지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가 있는데 선산(先山)에 매장하는 방식이며, 법인묘지는 흔히 공원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산매장 비용

선산에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기본 작업비와 석물(石物)비로 구분된다. 기본 작업비에 장비(포크레인), 인력, 잔디, 석회 등이 포함되며 석물은 비석, 상석, 둘레석을 비롯하여 망주석, 석등, 병풍석 등 다양하다.

지역이나 매장지의 환경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작업비 발주금액은 대략110만 원부터 시작한다. 물론 소비자가격은 여기에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마진이 붙어서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한다. 석물비용은 돌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크다. 평균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소비자가의 20~30% 정도가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들의 중간마진으로 들어간다. 물론 우리 조합에서는 직거래 방식으로 알선수수로 없이 산역(山役)을 제공하고 있다.

선산 매장 비용 예시

구분	기본작업비	비석	상석	둘레석	합계
내용	포크레인, 인력 2명, 석회 5포, 잔디 10평	오석, 높이 90cm	대리석 폭 90cm	대리석 3단 사각	
소비자가	15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420만 원
조합원가	110만 원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선산에서 매장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과 협의이다. 보통 해당 마을에서 주민이(또는 마을에서 알선한 업체) 직접 산역을 진행하고 비싼 비용을 요구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마을사람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원묘지 매장비용

공원묘지의 매장비용은 토지비용과 석물비용, 작업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2001년 ‘한시적매장제도(최대 60년까지)’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 일괄 묘지사용료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공원묘지의 경우 보통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단장으로 모시는 구역, 합장 구역, 일반 구역, 고급 구역 등으로 비용은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이다. 요즘은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공원묘지가 봉안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장례비용 마지막 편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입고 떠날 옷은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무더운 7월 어느 날, 충남한두레협동조합(충남조합) 박갑주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산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송악동네)’ 마을공방에서 광목으로 수의를 짓고 있다는데, 우리 조합과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그런데 우리 조합은 될 수 있으면 수의 입지 않고 평상복 입자고 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네요.”

박 이사장은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는 행차를 다녀오더니 바로 전화를 해왔다.

“아산에 한 번 내려오셔야겠어요. 얘기할 게 많아요.”

다음날, 평소 언행이 틀림없는 박 이사장의 판단이라 나는 군소리 없이 아산으로 달려갔다.

박 이사장과 만나 천안 ‘피양옥’에서 평양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송악동네(아산시 송악면 역촌길 24)로 향했다. 20분쯤 달리자 ‘송악마을공간 해유(해유)’라 쓰인 번듯한 2층 건물이 나타난다.

외암민속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해유’는 ‘사랑해유’, ‘함께해유’라는 충청도 사투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을주민의 배움터이자 공유공간인 해유는 농림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만들어져 ‘송악동네’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8년 ‘공동체우수사례발표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날개옷'을 함께 만드는 송악동네사람들 다큐보기 https://youtu.be/dXUpsol_npg

한낮 땡볕에 달궈진 몸으로 카페로 들어서자 조합 임원들이 환대한다. 윤혜영 이사장, 홍승미 상임이사, 박민영·유채영 이사….

송악면 인구는 4천2백여 명이고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2000년에 거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나서서 살려냈다. 그 동력이 이어지면서 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협동조합 결성에 이른다. 역촌면 가구의 절반 정도인 1백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송악동네는 3년 전부터 '날개옷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날개옷이란 광목 수의를 말한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재료로 수의를 지었다. 일제 강점기 수의가 삼베로 획일화되기 전에는 관복이나 혼례 때 입던 옷을 입기도 하고 새로 지을 때는 비단, 무명, 모시 등 다양한 소재로 짓는 것이 전통이었다. 거칠고 예쁘지도 않고 평상시 입지도 않는 삼베 수의를 대신할 것은 없을까.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우리와 친근하고 자연에 가까운 광목 수의(壽衣)가 탄생했다.

김미아 날개옷사업단 팀장은 말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입는 옷, 배내옷은 광목으로 짓습니다. 광목이 가장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광목은 목화에서 실을 추출해 얇게 가공한 천으로 무형광 무색소로 생분해성이 높습니다. 광목 날개옷은 특별합니다. 맞춤제작방식으로 광목을 곱게 물들여 단 한 벌의 옷을 위해 원단을 염색합니다. 원삼 깃과 도포 깃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자수를 놓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옷을 짓습니다.”

날개옷은 광목천 물들이기, 패턴 그리기, 재단하기, 수놓기, 재봉하기, 손바느질, 다림질, 포장의 제작공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에 송악동네 조합원들의 수고가 더해진다. 생의 마지막 옷이 그저 삼베 수의뿐이라는 현실이 몹시 못마땅했던 김미아 팀장.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열심히 수의를 연구했고 국가장례지도사 자격 과정도 이수했다. 수의를 제대로 입히려면 장례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예부터 상이 나면 온 마을 여자들이 모여 정성껏 옷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고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담아 수의를 지었지요. 함께 수의를 지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 날개옷을 펼쳐보니 실로 아름답다. 기존 삼베 수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품과 멋이 느껴진다. 구성품은 20여 가지로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입히는 손길은 아주 정성스러워야 할 것 같았다. 그 과정이 바로 송고한 이별의식일 것이다. 김 팀장의 말에 나는 설득당했다.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상복이나 간소한 복장도 좋지만 날개옷도 썩 괜찮을 것 같았다.

해마다 여름에 마을에서, 집마다 마련해 둔 광목 수의 상자를 열어 ‘거풍제(擧風祭)’를 열고 싶다는 송악동네 사람들. 마을 광장에서 빨래줄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는 수많은 날개옷들. 그 장엄한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자 울컥 눈물이 솟는다. 생의 절정은 죽음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가입문의 041-545-0535
- 날개옷 상담·주문 전화 010-8571-3360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300만원 이상 조합비 납부자의 지속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우리 조합은 3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 납부 지속여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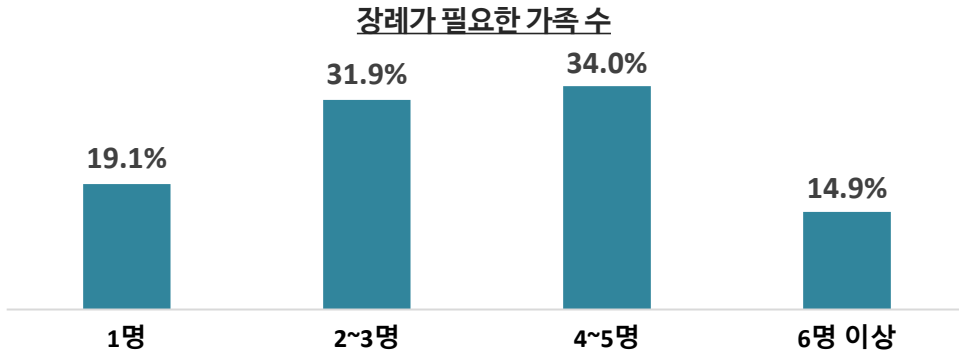
300만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뒷돈과 바가지 없는 맞춤형 장례의 1회 평균 비용(타 상조회사의 480만원 패키지 상품에 해당)입니다

이에 대해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300만원 이상 납부시 지속 납부 여부’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

장례가 남아있는 가족 수

‘장례가 필요한 가족 수는 4~5명이다’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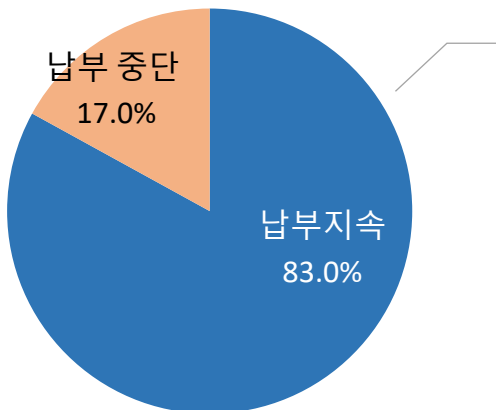


2

300만원 이상 납부자일 경우, 지속납부 여부

‘납부금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계속해서 납부하겠다’ 83.0%

300만원 이상 납부시, 지속납부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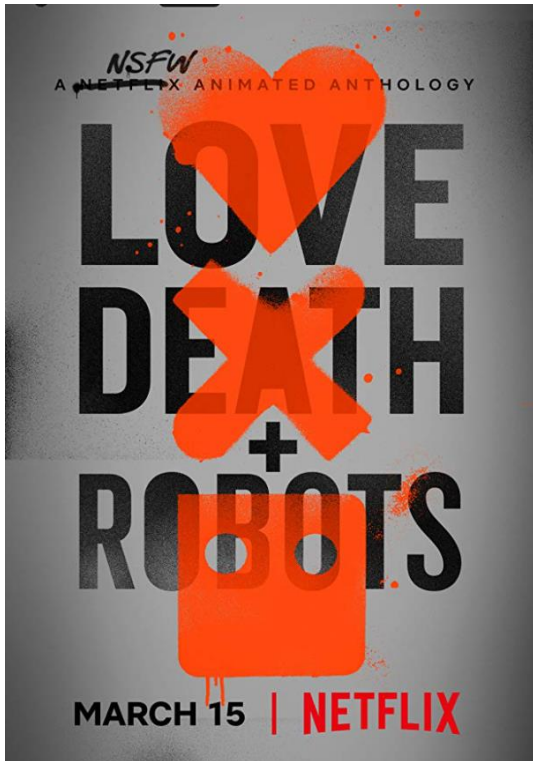
장례 필요 가족 수 별 납부지속 긍정율

1명: 55.6%
2~3명: 80%
4~5명: 93.8%
6명 이상: 100%

*자료출처: 조합원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47명, 2021. 7)

*설문조사 건강식품 1박스 경품 당첨자: 조영곤, 심범진, 박문식 조합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러브, 데스+로봇(Love, Death & Robots, 2019)

데이비드 핀처, 팀 밀러 제작 / 넷플릭스 오리지널

간혹 하늘을 올려다 볼 때면 ‘존재한다’는 것에 진지해진다. 하늘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므로. 지금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것일까. 나는 정말 나일까. 조정자가 있는건 아닐까. 저 너머 세상은 어떤 곳일까.

어린이의 공상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이도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삶이 후 세계를 궁금해 한다. 현재의 삶이 고통이라면 이후에는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그런 곳에 도달해 안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인 '러브 데스 +로봇'을 보며 이런 생각은 더 깊어졌다. 사랑, 죽음, 로봇이라는 세가지 키워드 중 한가지를 차용해서 만든 영화로 시즌2까지 24회 제작되었다. 놀랍도록 재밌어서 어떤 것은 두어번 반복해 볼 수밖에 없었다.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화의 상상력에 정신이 얼얼할 지경이었다.

〈러브, 데스+로봇〉은 〈세븐〉 〈에일리언3〉 〈벤자민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등을 감독한 데이비드 핀처가 제작했다. 잔인하지만 아름답다. 미처 보지 못한 삶의 결을 들춰본 것 같다. 한 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돋보였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내내 제목을 생각했다. 살아 있는(삶이 있는) 우리에게 사랑과 죽음을 키워드로 한 이야기는 일상적인 질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래 이야기인 로봇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하고자 했던 것일까. 영화의 여운은 떠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다시 질문해 본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제3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장례, 어떻게 준비할까?

죽음이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이승의 일을 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한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일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이 순간 나와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비학교 강좌를 통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죽음과 장례를 이해하고, 임종에 임박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교육 소개

- 대상: 장례가 임박한 분, 미리 장례를 준비할 분, 장례 상담이 필요한 분 등
- 일정: 2021년 8월 19일(목) 오후 4시-6시
- 교육 정원: 총 15명 (Zoom 화상 10명, 오프라인 5명)
- 신청: <https://url.kr/4l8kxn>
- 교육 장소: 온라인+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문의: 02)722-9517

■ 프로그램

- ① 채비장례란
- ② 추모식과 장례 진행 과정 이해
- ③ 사전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 ④ 부모(가족)와 추억 만들기, 가족사 쓰기 등의 의미

■ 강사소개

박태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대표 장례지도사.

10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살며 죽음은 삶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죽음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 철학을 가진 장례지도사를 꿈꾸며 현재 동국대에서 생사학 석사과정을 전공 중이다. 지은책(공저)으로 <죽음이 삶에게 안부는 묻다>(검둥소)가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채비장례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비플랜’은 이를 위한 조합원 대상 프리미엄 강좌며 채비장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합니다.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이별도 간편하게 정리되고 치러집니다. 이별은 고인을 잘 보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볼 순간이기도 합니다. 채비플랜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장례 준비, 채비장례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
- 대상: 고인과 가족 중심의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분, 미리 장례 준비가 필요한 분, 채비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 등
- 일정: 9월 1,9,16,29일 18:30~20:00
- 교육 정원 및 마감: 7명
- 신청: <https://me2.do/G5rMcgJp>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 10시~ 오후 5시)
- 신청 기한: 8월 31일까지 (선착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강의 날짜
1	채비장례란?	- 채비장례 개요 - 준비 사항	9월 1일(수) 오후6:30~8:00
2	추모식 준비1	- 고인 생애사 초안 잡기 - 사진 정리와 사진 영상 구성 짜기	9월 9일(수) 오후6:30~8:00
3	추모식 준비2	- 사진별 멘트 정리 등 영상 만들기 마무리 - 영정 사진 선택, 유품전시 물품 목록 작성 - 추도사 쓰기와 조문객 수와 부고 문자 작성 등	9월 16일(수) 오후6:30~8:00
4	가상 추모식	- 메모리얼포스트 작성하기 - 유품 전시, 가상 추도식 진행	9월 29일(수) 오후6:30~8:00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연합회] 안녕 사이시옷 유튜브 채널 인터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단체나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채널 '안녕 사이시옷'의 요청으로 김상현 이사장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상조회사에 만연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조합원님의 지지와 댓글이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

1. 해당 영상 '좋아요' 클릭
2. 댓글로 응원하기
3. 영상 끝까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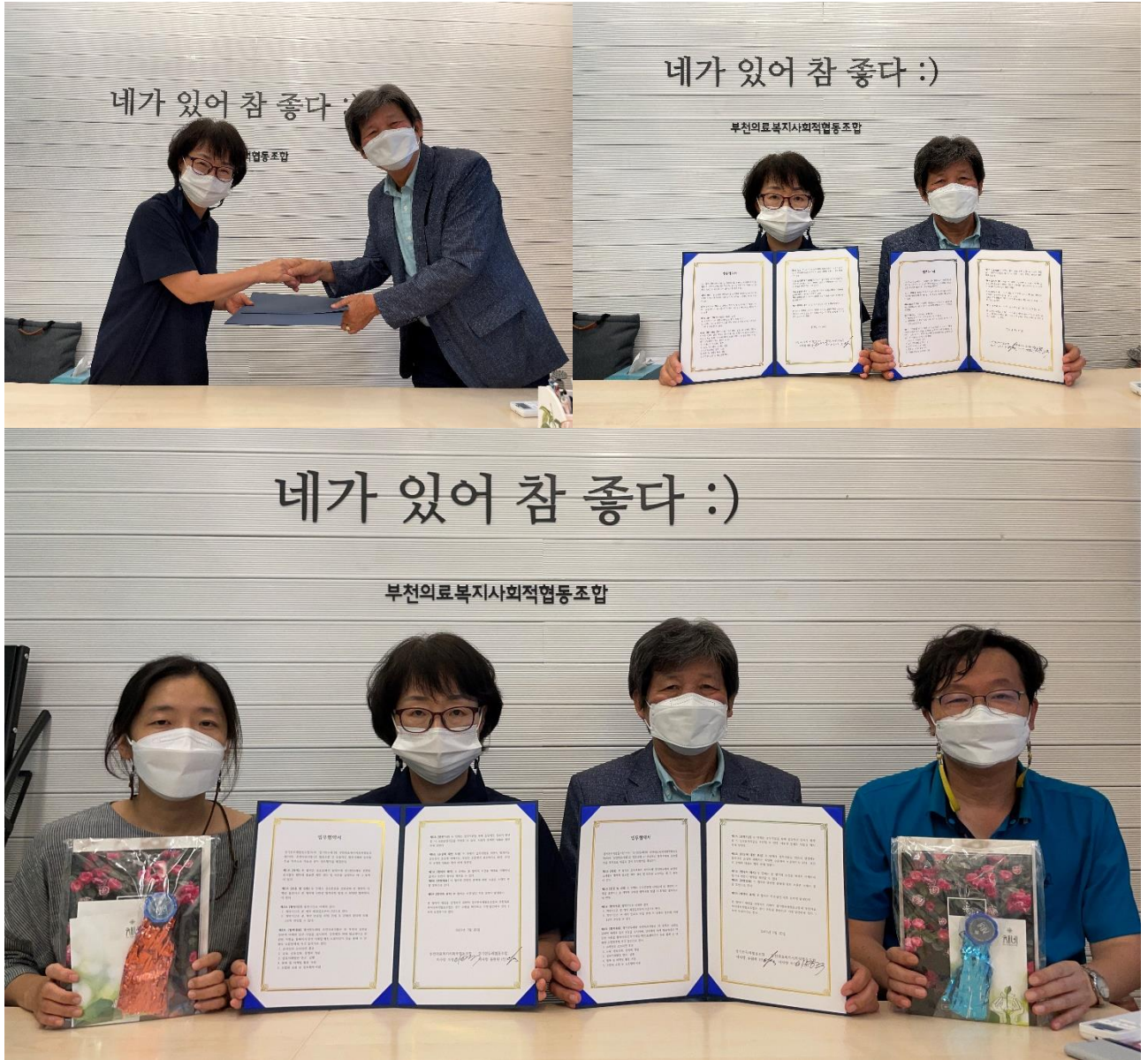


상조회사의 '뒷방'을 아시나요?
장례식에서 두번 우는 이유
<https://youtu.be/PzwjACdYprl>



장례식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접객중심이 아닌 고인 중심의 추모장례
<https://youtu.be/Bc749QHxv8A>

[경기조합]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과 업무협약



지난 7월 20일, 경기조합이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과 홍보, 교육, 마케팅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2021. 7월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최정서 조합원 모친상
최정우 조합원 누나상
한승동 조합원 모친상

이영미 조합원 시부상
정경진 조합원 모친상
오헨리 조합원 배우자상

이혜순 조합원 시부상
정승균 조합원 빙부상
박영철 조합원 모친상

2021. 6월

신종훈 조합원 부친상
박용규 조합원 본인상
박상훈 조합원 조모상
이유진 조합원 부친상
정형원 조합원 부친상

윤성주 조합원 모친상
이수연 조합원 시부상
김태형 조합원 빙부상
박종아 조합원 모친상

박승흠 조합원 빙부상
이형숙 조합원 시모상
이현우 조합원 빙모상
방형석 조합원 부친상

2021. 5월

노은실 조합원 시부상
이승환 조합원 부친상
임현택 조합원 부친상
홍선용 조합원 형수상
김소영 조합원 시숙상

이명진 조합원 본인상
박규섭 조합원 빙부상
노환춘 조합원 부친상
정 훈 조합원 빙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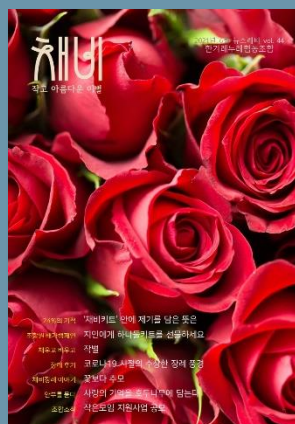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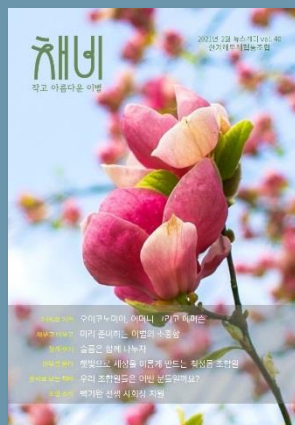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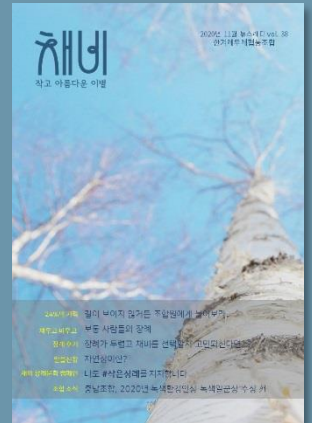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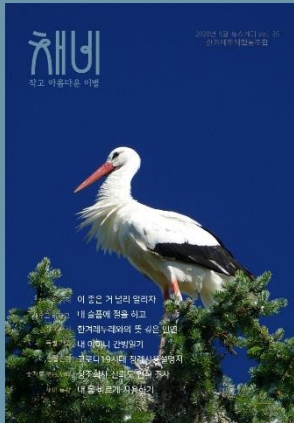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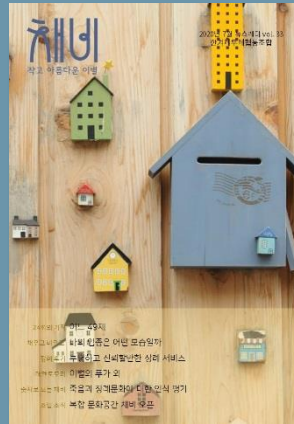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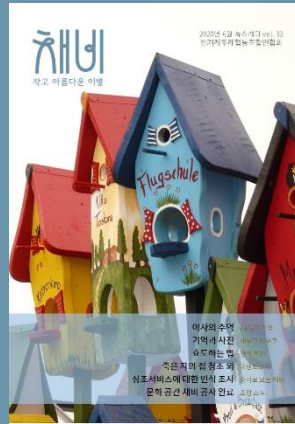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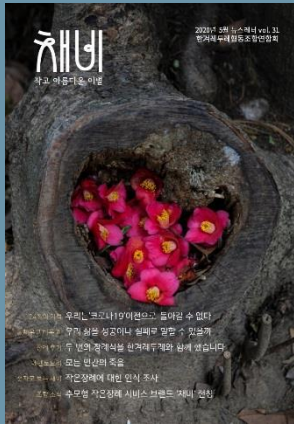
문중호 조합원 빙모상
김정찬 조합원 부친상
여상재 조합원 부친상
조현일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